

생애초기부터 일과 여가의 균형있는 삶을

이 영 소장

201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의 평균 노동시간은 2,090시간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33.3명으로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교육비 민간지출 1위, 그러나 행복지수(BLI)는 26위, 안전한 삶의 지표는 최하위를 보인다. 그 가운데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OECD 국가 중 1위(67.6%)로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고등학교 이수율(98%)과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 이수율(64%) 또한 1위로 한국인의 학업성취의 열정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지표 중에서도 육아의 관점에서 볼 때, 2013년 합계출산율이 1.18명으로 육아지원의 확대 속에서도 한국의 초저출산 기조는 지속되고 있으며, 그 감소의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다. 이러한 사회 지표들은 한국사회가 이룬 눈부신 성공의 어두운 이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 사회는 그 간의 성장과 발전이 가져온 우리 안의 그늘과 상실에 대해 뼈아프게 성찰해야 하는 시간을 맞고 있다.

본 호에 담고 있는 4개의 연구들은 저출산 기조 속에 성장하고 있는 미래 인적자원 영유아가 현재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자료의 단면들이 나타내는 한국 영유아 생애초기의 모습을 제대로 읽어내고 진단하는 것이, 진정한 저출산 대응과 육아지원정책의 시작이 아닐까 싶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재 한국의 영유아들은 문화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환경속에서 집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 등이 부족하며, 스마트 폰의 보급과 확산에 따라 영아기부터 높은 수준의 미디어 노출과 스마트 폰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하루 생활시간을 들여다보니, 평일 수면시간이 부족하고 보육·교육 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중에는 TV 시청이 많았으며 바깥 놀이활동과 문화참여 시간이 부족하였다.

서로 다른 주제에서 시작된 연구들이었으나,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영유아의 양육환경이 어떠한지 아이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보여주면서, 연구결과와 데이터는 상당히 일관된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영유아의 여가경험과 활동이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영유아기부터 놀이와 여가의 활성화를 통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일과 여가, 학업과 여가와 놀이가 균형을 이루는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을 적극 제시하고 있다. 어쩌면 진정한 육아지원과 저출산 대응의 전략은 바로 우리의 인접환경과 일상생활 속에 쉽고 여유, 여가와 놀이를 통한 인간 본성의 회복과 이에 대한 존중에서부터 시작함을 데이터는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음이다.

우리에게는 예로부터 구전되어 오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라는 노래 구절이 있다. 과거에는 부지런히 일하지 않는 게으른 배짱이의 모습으로 치부했으나,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오래된 구절의 의미를 긍정적·생산적인 가치를 내포한 충정과 행복의 기제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일과 학업 중심의 과도한 노동량과 시간이 지금과 같은 초저출산의 기초를 낳았음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인식에 있다. 이제 우리사회는 과도한 일 중심, 학업에의 몰입에서 벗어나 여가와 놀이, 문화가 생애 연령주기와 상관없이 고르게 구성되는, 연령분리가 아닌 연령통합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재충전되는 건강한 삶으로의 변화를 꾀하지 않고서는 출산율 제고의 미래 사회가 도래하지 않음을 인식한 결과라 하겠다.

이러한 노력은 영유아 대상 육아지원정책에도 반영되어, 놀이와 체험 중심의 누리과정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으며 육아정책의 지향이 행복하고 건강한 영유아로 구체화되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생애초기부터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더는 것도 중요하나, 건강한 삶이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지속되기 위해서는 생애 초기부터 다양한 생활 공간과 체험의 영역을 확산시키는 질적 발전의 전략이 필요하다.

한 나라의 삶의 수준과 생활상은 주요 지표의 통계치를 통해 드러난다. 이를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지향과 가치를 명확히 읽어내지 못하면 그 어떠한 정책과 지원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미래는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전략과 지원이 어떠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지를 제시하는 지표들을 보며, 영유아 뿐 아니라 모든 구성원에게 고르게 주어지는 놀이와 여가로 균형있는 삶을 구현하는 것이 미래 최우선 과제임을 외면하지 말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